

身土不二의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 지리산지역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전의 재배를 통한
임조계 품내
● 재질은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대행스님이 '해탈의 문'을 주제로 관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하고 있다.

▼법회로고 (문법강교수작)



대행(大行·73)스님은 독일인들을 해탈의 일주문으로 인도했다. 유럽 한복판 독일에 올려피진 스님의 생활법문은 한중기 청량한 바람이었고 김로법우였다. 7월31일 오후 4시(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근교 라텐겐 시민회관. 그곳에서 독일불교계에 새 바람을 일으킨 대행스님 초청법회가 열렸다. 회관 주변은 축제분위기가었고, 법회에는 3천여명의 청중이 운집했다.



▷대행스님 초청 대법회에는 독일 전역과 네덜란드 등 인접국가에서 유럽인들과 한국교인 3천여명이 참석했다.

대행스님 독일대법회 현장

해탈의 일주문으로 독일인들 인도

독일 전역에서 온 독일인이 2천여명으로 한국교민보다 훨씬 많았다. 네덜란드, 스위스 등 인접국가에서도 참석했다.

1100여의 강담 좌석이 모자랐다. 사람들은 바닥에 앉거나 서서 법문을 경청했다. 입장 못한 이들은 강당앞 전시장과 로비에서 TV 모니터를 지켜보며 법회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주 주독 한국대사, 슈툼 한국 명예영사, 뮐러트 글루브레히트 전 UN 핵에너지위원회 상임의장(하노버대 교수) 등 독일의 저명인사와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대행스님과 동행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단의 회장 광우스님, 수석 부회장 진관스님, 운영위원장 법운스님,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스님이 법석을 빛냈다.

독일은 물론 유럽 언론의 시선을 끈 이번 대법회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이 주최하고 주독한국 대사관과 명예 영사관이 후원했다. 식전행사도 대법회를 속에 한국산사



▷라텐겐 시민회관 앞 '해탈의 문' 법회안내 연꽃 애드벌룬.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96년 개원...1일 첫 보살계 법회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대행스님 독일법문에 맞춰 96년 10월 개원 이후 첫 보살계 수계법회를 8월1일 증명했다. 110명의 수계불자중 독일인은 40여명. 수계불자들은 대행스님의 수계법어를 가슴에 새기며 불자의 삶을 다짐하는 연비의식을 치렀다(사진).

뒤셀도르프 카스트에 위치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매주 일요일(오전 11시) 정기법회를 한국어와 독일어 동시통역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요일(오후 5시30분)에는 참선법회를 열고 있다. 법회 참석인원은 40~50명 안팎으로 독일인 불자들이 주를 이룬다. 그밖에 부처님오신날 불축법회, 새해맞이 촛불제, 칠석법회, 우란분제 천도제, 추석법회가 연중행사로 열리고 있다. 자운장 혜진스님과 혜배 혜남스님이 상주한다.

혜진스님은 "유럽인들이 뿌리깊은 기독교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열린 신앙관을 갖고 있어 유럽불교의 장래는 밝다"고 전망했다.

"나"라는 집착 버리고 믿고 관하세요 생활법문 들으며 3천여 청중 감동

의 아힘과 대행스님의 간단한 행장을 소개하는 비디오가 상영되고, 부산 한마음 선다회의 전통다도 시연이 있었다. 청중은 숨을 죽였다. 법회장에는 선기가 감돌았다.

광우스님은 '대행스님의 청중인연은 과거 선근박박을 심은 보살행의 인연 공덕'이라며 "모두가 나와 나 차별없는 한마음이 될때 세계평화와 정토를 이룰 수 있다"고 축사를 했다.

한마음선원 합창단의 음성공양, 목탁소리에 맞춘 뜻으로 큰 반야심경 봉독, 청정상배 입장등 예불의식은 한국 불교문화를 보여주는데도 한몫 했다. 대행스님이 법좌에 올랐다. "여기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어 한자리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행스님은 '해탈의 문' 주제 법문을 시작했다. 법문은 동시통역으로 전달됐다.

"세상은 하나의 공기 주머니입니다. 모숨·말·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싸워 서야 되겠습니까. 인간과 후생 미생물까지 한 생명 한 마음으로 살려만 살아 하나로 돌아갑니다.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옵니다. 정신을 빼놓고 밖으로 찾으니가 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안으로 찾으세요. 주체는 자기에게 있어요. 주체는 뿌리이고 자기 모습은 씨입니다. 씨를 뿌리를 믿고 뿌리는 씨를 도와야 푸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지리까지 울며 발걸음 줄여지고 온 사람 없듯이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믿고 관(觀)하세요. 모두가 알아합니다. 우리는 연기법(緣起法)으로 살니다. 그 길을 만들려면 자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장자기를 만나면 관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시간여의 설법이 끝났다. 질문이 쇠도했다. 독일교포신문 흥성법기자는 감사의 인사를 했다.

"가치관이 상실되고 있는 때에 오늘 해탈의 문을 열어주시는 날입니다. 재독한인사회 3만5천 교민들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독일인은 "기독교인이 신에 의지

를 시작했다. 법문은 동시통역으로 전달됐다.

"세상은 하나의 공기 주머니입니다. 모숨·말·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싸워 서야 되겠습니까. 인간과 후생 미생물까지 한 생명 한 마음으로 살려만 살아 하나로 돌아갑니다.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옵니다. 정신을 빼놓고 밖으로 찾으니가 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안으로 찾으세요. 주체는 자기에게 있어요. 주체는 뿌리이고 자기 모습은 씨입니다. 씨를 뿌리를 믿고 뿌리는 씨를 도와야 푸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지리까지 울며 발걸음 줄여지고 온 사람 없듯이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믿고 관(觀)하세요. 모두가 알아합니다. 우리는 연기법(緣起法)으로 살니다. 그 길을 만들려면 자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장자기를 만나면 관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시간여의 설법이 끝났다. 질문이 쇠도했다. 독일교포신문 흥성법기자는 감사의 인사를 했다.

"가치관이 상실되고 있는 때에 오늘 해탈의 문을 열어주시는 날입니다. 재독한인사회 3만5천 교민들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독일인은 "기독교인이 신에 의지



▷한마음선원 합창단의 음성공양은 열광적인 감동을 받았다.

하지 않고 진리를 찾게 되면 10계를 버리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대행스님은 답했다. "주인공에 맡겨 자성심을 찾으면 10계뿐 아니라 100계 200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독일불교연합 공동대표 다그마 도코 바스피니(56) 바구니스님은 "생활선을 강조한 대행스님 법문에 감명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톨릭신자로 큰 십자기를 목에 건 미모의 독일어인은 말했다.

"문화에 따라 문제해결의 방법이 있다는걸 새롭게 배웠습니다."

나란히 앉은 중년의 두 독일남자는 법회시작전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어려운 병을 앓고있다. 생사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기독교 책으로 공부했는데 답을 못찾았다. 고통을 이기는 법을 찾고자 왔다."

"정년퇴직 후 평가 찾고 있었다. 4

년전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졌는데 라디오 코리아에서 대행스님 법회소식을 듣고 친구와 함께 왔다."

두 도반은 법문을 듣고 어떤 법당을 나누었을까.

법회가 끝날무렵 하늘은 맑은데 한 줄기 지나가는 비가 더위를 식혔다. 감로법우가 목마름을 풀어주듯.

'해탈의 문' 법회안내 현수막에 달린 5개의 연꽃 애드벌룬이 마치 해탈의 일주문처럼 섰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본 것이 인연입니다."

"참나가 무엇인가 진실로 관하라. 내가 있기에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다."

대중은 법회장 안팎 플래카드에 적힌 대행스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연꽃 일주문 쪽으로 향했다.

독일 뒤셀도르프-최정화 편집국장

독일불교 현황

"현재 독일에는 50여개의 크고 작은 불교모임이 있습니다. 신도 수를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대행스님 대법회에 참석한 독일불교연합 공동대표 다그마 도코 바스피니 바구니스님(56·사진)이 말하는 독일불교 현황이다.

독일불교의 새로운 현상은 티벳불교, 미얀마의 위빠사나, 일본 선불교등 여러 종류의 불교들이 함께 모임의 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

독일불교연합은 원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1명의 공동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계간지 '로터스레터'(연꽃소식)를 간행하고 있다.

독일 최초의 불교단체는 1921년 뮌헨에서 결성된 독

신도 10만여명·50여불교모임 '활동'



일불교회. 게오르규 그링(1868~1945)에 의해 창립됐으나 히틀러 압제정치로 탄압으로 해체됐다.

1955년 독일불교협회가 창설되고 1960년 독일불교도 연합회(DBU)로 재발족했다. DBU의 주장으로 독일불교는 1985년 연방정부로부터 세계적인 종교로 인정받는다. 같은해 유럽불교도연맹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국제불교도(WFB)협회 회원이다.

독일불교학자 한스 볼프강 슈만은 독일시사지 '슈피겔'의 불교특집에서 "유럽인들의 상당수는 불신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불교의 온유함과 관용은 큰 매력을 품고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행스님의 물질계와 정신계가 돌아나게 줄어간다는 요지의 법문과 생활선은 유럽인들에게 새 길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독일에는 카스트의 한마음선원지인, 베를린의 보문사(주지 명오), 브레멘의 공법사(주지 회상) 등의 한국사찰이 있다.

이모저모

나치정권 학살영혼 천도제

▷대행스님은 8월5일 뮌헨 근교에 있는 다하우시 강제수용소 추념관 광장 바비라 디스텔)을 방문 나치정권에 학살당한 영혼 천도제를 지냈다.

독일언론 '퀴트 도이체 파이퐁'과 '다하우 나흐리시텐'은 천도제 기사를 8월 7~8일자에 사진과 함께 비중있게 다뤘다.

대행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천도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말로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당시 3군대 수용소(다하우, 아우슈비츠, 플로렌부르크)가 있었는데 수만명의 영혼들이 오늘 다 모여 모두 해방됐다고 말했다.

합창단 음성공양 '앙코르'

▷한마음선원 합창단(당장 최선희)의 음성공양은 열광적인 감동을 받았다. 서울본원과 부산지원에서 온 67명의 단원들은 한복을 곁에 차려입고 법회 전후 2회의 음성공양을 했다. 반야심경, 무상계승, 지혜의 노래등 찬불가와 한국민요 농부가에 이어 '노래의 날개위에' '승이' 등 독일가곡이 흐르자 청중은 박수로 환호했다. 지휘자 서운재씨가 독창으로 '슈베르트의 소아곡'을 부르니 감탄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합창단은 두 차례나 앙코르 무대를 꾸겼다.

독일언론 법회취재 경쟁

▷독일의 언론들은 대행스님 초청법회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7월28일 오후 늦게 독일지면에 도착한 스님은 29·30일 이틀동안 신문·방송 인터뷰와 독일인사들의 방문으로 쉬 틈이 없었다. 알간지 '베스트도이체 파이퐁'은 7월20일자 16면 전면 대행스님 법회안내와 가르침, 독일지원을 소개했다. '라이니세 포스트'는 7월 31일자 법회소식을 전했다.

행사 후에도 방송사에서 출연요청이 있었으나 스님은 짜여진 일정관계로 응하지 못하고 8월11일 귀국했다.



▷대행스님 법회집과 테이프 행사로 그가 새겨진 기방·컵 등을 사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